

# 전국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병원 환경 평가

송진성\*, 남은우\*\*, 이동원\*\*\*

\*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, \*\*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, 건강도시연구센터장

\*\*\*전국의료원연합회 교육연구팀장

## ■ 연구배경

건강증진병원(Health Promoting Hospitals)은 신공중중보건운동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건강도시(Healthy Cities)와 함께 건강의 장(Settings)의 한 부분으로서 등장한 개념이다.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는 건강증진병원을 ‘단순히 치료서비스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개념에 따라 병원의 전반적인 기능을 재설정을 하는 병원’으로 정의하고 있다.

건강증진병원의 대상은 환자, 직원, 지역사회 및 병원이 되며, 보건교육·지도, 건강 정보제공, 건강한 병원(직장)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 참여 등의 병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실시된다.

## ■ 연구목적

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전국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병원 환경 수준을 비교·평가한다.

둘째, 이들 주요 결과들을 근거로 향후 공공병원이 추구해야 할 건강증진병원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.

## ■ 연구방법

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협력으로 연합회 소속 지방의료원 34곳을 모두 조사하였다. 조사는 지방의료원 QI담당자 회의에서 건강증진병원 환경평가 지표 기입방법을 설명한 뒤 배부하였고, 이를 각 의료원 QA담당자가 작성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, 회수율은 100.0%이다.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2일부터 10일간이었다.

배포된 설문지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(AHP)을 이용하여 건강증진병원 환경 평가지표로 구성되었고, 지표는 금연, 절주, 운동, 영양, 휴식의 5개 영역으로 각 20문항으로 개발되었다.

## ■ 연구결과

### 1. 지역별에 따른 건강증진병원 환경 비교

금연 우수지역 : 경남지역(0.166), 대구(0.154), 경기도(0.154)

취약지역 : 충북(0.115), 제주(0.120), 강원도(0.121)

절주 우수지역 : 부산(0.019), 경남(0.018), 전북(0.015)

취약지역 : 전남(0.003)

운동 우수지역 : 부산(0.215), 대구(0.164), 경남(0.130)

취약지역 : 경기도(0.048), 제주(0.053), 충남(0.059)

영양 우수지역 : 대구(0.075), 경북(0.069), 경남(0.066)

취약지역 : 서울(0.087), 전북(0.095), 제주(0.098)

휴식 우수지역 : 대구(0.075), 경북(0.069), 경남(0.066)

취약지역 : 서울(0.014), 인천(0.018), 충남(0.027)

### 2. 병상규모별에 따른 건강증진병원 환경 비교

지방의료원의 규모별 건강증진병원 환경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300병상 이상은 대형, 299~200병상은 중형, 199병상 이하는 소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.

중형 규모의 의료원이 금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(0.468)를 얻었고 다음으로 대형(0.428), 소형(0.416)의 순이었다.

### 3. 생활양식별에 따른 건강증진병원 환경 비교

건강증진병원 환경 평가 5가지 항목별로 전국 지방의료원을 구분하여 보면 금연, 영양, 운동, 휴식, 절주의 순으로 나타났고, 절주에 대한 환경이 특히 취약하였다.

## ■ 결론 및 제언

전국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병원 환경은 금연과 영양환경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절주환경, 휴식환경, 운동환경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가지의 사업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.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(WHO)의 건강증진병원(Health Promoting Hospitals) 개념을 적용하여 다각도로 직원과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.